

2015 9.06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 이 사 야 35,4-7 <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제 2 독서 : 야 고 보 2,1-5 <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음 : 마 르 코 7,31-37 <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1 독서와 2 독서 그리고 복음말씀을 보면,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은 보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듣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분야에서는 아마 보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듣는것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간생활안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며칠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중동의 시리아 사태로 세살먹은 어린아이가 터키 해변가에서 죽음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천명이 지중해 해안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수천명이 한두달 사이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럽사회는 그들을 받아주려 하질 않았습니다. 계속 내몰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아이의 죽음으로써 유럽뿐 만이 아니라 세계가 눈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눈을 열었느냐 하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닌 것 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런일이 먼 곳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닿은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있었지요. 어린아이들이 대대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해결 하느라고 미국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또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아픔을 느끼고 나누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아직도 장님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아직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10년 20년 또는 50년 60년 성당을 다녔어도 내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느끼고 나누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적으로 장님입니다. 지금 미국대선에서 나오는 한 유명한 백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장님일 뿐만 아니라 귀머거리이고 맘대로 지껄이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사람이 대선 경합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미국의 보수층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님이라는 것 입니다. 귀머거리이고 또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여야 하지요.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이들은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 어떻게 기쁘게 살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시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자비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입니다. 오늘 2 독서 야고보서한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시간이 나시면, 아니 일부러 시간을 내시어서라도 계속 되뇌이시면서 읽어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야고보서한은 가장 실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여 주십니다. 오늘 들은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렉서스나 BMW, 아니면 하다 못해 페라레를 타고 온 사람을 보면 와! 하고 저사람하고 엮어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을때 거기다가 샤워를 안해서 몸에서 냄새가 난다면, 저 사람이 내 옆에 앉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성인께서는 그것을 이길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만약 내가 명품으로 치장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나는 아직 하느님의 자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요! 부자들은 잘 해주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을 푸대접 할 때에 야고보 성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으시고 뽑힘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매번 있습니다. 저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떼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떼떽하지 못합니다. 허지만 바로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 보고 내 눈과 마음과 귀와 입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우리가 이 미사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이 참 아름답지요? 시편은 늘 아름다운데 오늘 시편을 들으시면 한결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고 산다면 이 시편의 혜택을 우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받을 것 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뽑으시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방황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허약하여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입을 열어,
저희와 함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4-7 ㄴ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6(145),6 다-7.8-9 가.9 나다-10 가나(◎ 1 나)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서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5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성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7

그때에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